

다변화시대에 대비한 군 정신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이 승 진* 이 영 옥**

요 약

장병들의 무형전력을 구성하는 정신전력은 최근에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사를 살펴보면 무형전력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 군이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신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장병들은 정신교육을 '의례적인 교육, 지루한 교육, 시간 때우기 식 교육'으로 여기고 있으며, 불미스러운 군 관련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신교육의 효과에 대해 의문과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현행 군 정신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인지중심의 군 정신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다변화 시대에 적합한 강군을 양성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the Diversification Era

Lee Seung Jin* Lee Young Uk**

ABSTRACT

Mental power, which is the intangible power of soldiers in our security situation, is very important recently. As for the history of war in East and West Korea, intangible combat power is regarded as a key factor that determines the rise and fall of the nation and the victory and defeat of the war. Recently, we are trying to improve the mental education in the military, but we still regard it as formal education, boring education, and time-consuming education. And continues to present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current mental education and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cognitive centered mental education. I would like to suggest a direction for fostering a strong group that is suitable for the diversification era.

Key words : Military Spiritual Education, Security, View of the Nation, Diversification Era, Accident Prevention

접수일(2017년 5월 31일), 수정일(1차: 2017년 6월 23일),
게재확정일(2017년 6월 30일)

* 안동과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 전주기전대학 글로벌산업인재과(교신저자)

1. 서 론

많은 국가들의 패망에 대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국가의 패망은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가까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베트남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패망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국민들의 안일한 안보의식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만연된 부정부패, 국방을 책임져야 할 군 내부의 군 기강 해이와 군인정신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교훈으로 삼아 확고한 안보의식과 패망한 국가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군 장병들의 무형전력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러 우방국과의 굳건한 동맹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장병들의 확고한 애국심과 해당 군의 '정신교육'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본다 [1]. 또, 정신교육은 어떤 무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많은 연구문헌들을 통해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세대 장병들은 과거의 세대와 다르게 입대 전부터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유아교육, 초등, 중등, 고등교육 등을 통해 형성된 남다른 '가치관과 성향'[2]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군의 정신교육은 신세대의 가치관과 의식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세대 장병들은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안보상황에 둔감한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세대'[2]이다. 이들은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자라면서 물질만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저 출산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1인 자녀가 많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또,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감각적이고 탈 이념적이며 전통적인 권위에 쉽게 굴복하지 않은 특징이 있고, 조직에서의 개인주의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신세대 장병들의 특징은 현재 군의 정신교육 내용과 방법상에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념적인 교육과 군대윤리, 도덕성 함양교육을 포함한 정신교육 교과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정권 교체와 한반도의 군사적인 위기상황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정신교육 변화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목적은 현행 군 정신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인지중심의 군 정신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오랫동안 군 정신교육의 교육방법과 내용면이 '인지중심의 영역'[3]인 지식 전달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벗어나야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정신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정신교육 범주 및 내용과 제반여건은 적절성, 일일·주간·반기 집중정신교육의 방법 및 진행과정과 정신교육의 효과와 개선의 필요성 등에 연구목적을 두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2. 군 정신교육에 대한 현상

2.1 선행연구 사례 분석

지금까지의 군 정신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군 정신교육에 관한 다양한 문헌들을 조사하여 정신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경험적 조사·분석으로서 실제로 군 장병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하거나 이미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헌연구 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연구 유형의 특징을 다음 두 가지로 다시 나누었다. 군 정신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전적으로 문헌연구조사에 의존한 연구와 이런 문헌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자와의 상담 및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병행한 문헌연구이다.

먼저 전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한 군 정신교육의 교육방법, 교육내용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연구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균열(2002)은 정신교육은 궁극적으로 통합된 인격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교재 개발, 다양한 교육방법과 기법활용,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 정신교육체계의 개선

[4]을 지적하였다. 장영주(2009)와 김진태(2013)는 군 정신교육의 시대별 변화과정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하면 장병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시기별로 군 정신교육기본교재 내용이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6]. 또한 유명덕(2008)은 군 정신교육이 장병들에게 안보관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역 후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군 정신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을 주장하였다[7]. 김영삼(2009)도 지식기반 시대에 맞게 일반사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미디어를 군 정신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8].

이에 비해 군 정신교육에 있어서 정훈교재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견해도 있었다. 최광현(2004)과 라영준(2013)는 군 정신교육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교관들의 교육준비 소홀이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교육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9,10]. 이지연(2011)은 장병들의 군 정신교육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서 정신교육에 대한 병사들의 생각이 시간 때우기식 교육, 장병들이 가장 지루하게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연구결과를 제시했다[11].

이에 개선방안으로서 교관들의 능력과 교육방법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에 부합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학자도 있다. 김세훈(2015)은 한국군 병영문화의 문제 및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병영문화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신세대 병사들의 개인주의 성향에서 그 원인을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신세대 병사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강조했다. 따라서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12].

또한 문헌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관계자와의 상담을 통한 문헌연구도 있었다. 강종혁(2014)은 GOP 부대 장병들의 군 정신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방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정훈관계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GOP 부대는 집적부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신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장병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군 정신교육과 리더십의 관계를 조명한 견해도 있었다. 김오현(2007)은 정신전력과 리더십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이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주체(주관부서 및 기관)는 상이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정신전력을 명예심과 군인정신 6대 요소를 포함하는 인격과 품성 부분, 대적관·안보관·군대윤리를 포함하는 지식과 역량 부분, 군기·사기·단결을 포함하는 실천·행동 부분 등 3개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함으로써[14] 이에 따른 핵심역량과 함양방법에 대해 구체화를 요구하였다.

2.2 군 정신교육 프로그램

2.2.1 일일 정신교육

군 정신교육의 영역에 따라서 구체적인 부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일일정신교육 프로그램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일 취침 전 10분 내외로 항재전장의식 함양과 단결심 배양에 주안을 두고 군 인정신 및 무용담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하고 있다.

<표 1> 일일정신교육 시행 프로그램[15]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용	생활관 이야기	일일 DJ 운영	명상의 시간	일일 DJ 운영	곰신과의 대화	일일 DJ 운영	따뜻한 이야기

특히 장병들이 하루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고, 부대별 교육자료 및 국방FM ‘명상의 시간’, 국방일보 병영칼럼, 일일정신교육자료집, ‘10분, 맛있는 인생’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GP 및 GOP, 해·강안 등 경계부대, 독립 경계부대, 예비군훈련부대 등은 부대

일과를 고려하여 군장검사, 교육훈련, 점호 시 수시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2.2.2 주간 정신교육

주간정신교육은 연간 36주 이상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하고 있으며 요일 변경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승인 하에 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주간정신교육은 시작 전에 부대임무 및 특성과 연계된 전승사례 교육, 영상물 시청, 군가가창, 구호제창 등을 통해 항재전장의식을 함양한다. 수업은 1·2교시에 기본정훈 및 명강 특강, 3교시에는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고, 국방일보 자료 유통 및 국방TV와 연계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 자료는 국방일보에 게재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3교시 문화단결활동은 장병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단결심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 안보세대인 미디어 세대의 등장으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정신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장병들이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체험위주 생활화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분기 1회(1일 4시간) 전·사적지 견학, 적 침투로 답사, 역사박물관 견학 등, 반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주간정신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표 2>와 같다.

<표 2> 주간정신교육[15]

가. 부대 유형별 교육

구분	총시간	기본정훈	명강특강/ 시사안보	문화단결 활동
전투부대	108H(주 3H)	36	36	36
기행부대	72H(주 2H)	36	36	
경계부대	36H(주 1H)	36		

나. 국방 TV 방송

본방송		재방송					
		1회(수)		2회(수)		3회(금)	
정훈 콘서트	명강 특강	정훈 콘서트	명강 특강	정훈 콘서트	명강 특강	정훈 콘서트	명강 특강
09:00	10:00	11:00	11:20	15:00	15:20	14:00	14:20
09:20	10:30	11:20	11:50	15:20	~15:50	14:20	~14:50

다. 과목별 편성 및 진행

구분	과업준비 (08:50 ~09:00)	1교시~2교시 (09:00 ~10:50)		3교시 (11:00 ~11:50)
전투부대	항재전장의식 함양활동	기본정훈 (정훈콘서트)	시사안보 (명강특강)	문화단결 활동
기행부대				B조 교육 (정훈콘서트, 명강특강 시청)
경계부대	기본정훈(15:00~15:50)			

2.2.3 반기 집중정신교육

반기 집중정신교육은 대대단위 반기 1회 실시하며, 전투부대는 4박 5일(40시간 이상), 기행부대는 2박 3일(24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집중정신교육의 목표는 일선불사의 전투의지 함양, 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주지, 군 생활과 인생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정립과 정신적 대비태세 완비,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 인식으로 대한민국 국민 기본소양 함양이다. 중점은 행동화 체험식 정신교육 시행, 지휘관 중심의 교육으로 전 장병이 함께 호흡하는 교육 분위기 조성, 사전 지휘관에 의한 연구강의·준비 사열을 통한 철저한 교육준비, 교수기법 지도 및 간부선 신념화, 적극적인 포상대책으로 병사 동기부여, 부대운용 조정·통제를 통해 교육 전념 여건 조성, 부대원의 화합·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 3> 반기 집중정신교육[15]

구분	군인 정신	국가관/역사 교육	안보관	행동화 체험 교육	부대 위임	
시간	전투	8H	6H	10H	8H	8H
	기행	4H	4H	6H	5H	5H
교과 편성	군인의 가치관 · 군생활의 보람과 각오 군조직의 특성과 역할 전투수법 사례, 역사의식	유구한 우리의 역사 · 대한민국의 탄생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자유를 지켜낸 6·25전쟁 · 북한이 끊임없는 대남도발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한미동맹의 역사와 미래	전투준비태세 · 부대이동 전투준비 · 전투실시 * 각 단계별 행동화 과제 검출	전 사적지 견학 · 부대정신 계고 정훈경연대회 전승결의대회 전우애 합양 교육 · 자체 편성 프로그램	

특히 집중정신교육은 부대별 대대장 지휘관 책임 하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등 교육 준비로 부터 종료 시까지 지도 및 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목을 살펴보면 군인정신 과목은 육군 5대 가치관 교육을 중심으로 이론 설명,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실시하고, 국가관·역사관 과목은 6·25전쟁, 한국 근현대사, 역사관 확립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우월성을 고취하는데 있다.

안보관 과목은 대대장급 지휘관 직접 교육에 의한 특별정신교육, 정훈장교 교관 지원, 안보견학 시행(천안함, 제 3땅굴, 도라전망대, 전쟁기념관 등), 도전 골든벨 경연대회 등을 실시한다. 부대위임 과목은 부대 대토론회, 각종 경연대회 등 동적활동 시행하고 체육대회 및 단결활동 등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있다. 반기 집중정신교육으로서 프로그램은 <표 3>과 같다.

3. 군 정신교육의 문제점

3.1 일일 정신교육

일일정신교육은 교육방법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야전부대에서 실행되고 있는 일일정신교육의 일방적인 낭독식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는 지나친 안보관 위주의 낭독식 교육방법으로 이로 인한 병사들의 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가 떨어지고 병사들이 잘 듣지도 않는 현실이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육방법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일정신교육의 교육방법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병행해서 방송장비도 부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노후화되고 방송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3.2 주간 정신교육

주간정신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효과성이 다. 현 야전부대의 주간정신교육은 매주 수요일 방송되고 있는 국방TV의 ‘공감정훈콘서트’와 ‘명강특강’을 시청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주간정신교육의 국방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교관으로서의 부담을 덜어주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병사들은 지휘관이나 정훈장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국방TV 정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상대적으로 더 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3 집중 정신교육

집중정신교육 프로그램이 부대 단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지는 것이다. 집중정신교육의 과목편성이 안보관, 부대 위임과목 일변도로 병사들의 개인별로 동기부여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도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등병시절부터 병장에 이르기까지 기본정훈 18개 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복교육으로 교육에 대한 흥

미, 내용의 지루함에서 오는 현상으로 보아진다.

4. 군 정신교육 개선방안

군 정신교육의 개선은 부대정신교육의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면에서 일일, 주간, 집중정신교육의 각 분야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4.1 일일 정신교육

일일정신교육의 교육방법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병사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음의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는데, 예를 들어 매일 부대의 운영을 고려해서 야간보다 주간 시간 때에 30분 정도 장병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화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야간에 방송장비를 활용한 저명한 저널리스트들의 칼럼 청취, 성직자들의 명언을 듣는 시간, 전우 칭찬하기, 부모님의 육성 편지 청취 등을 통해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주간 정신교육

부대정신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간정신교육의 방법 개선으로, 국방부에서는 외부의 전문가 집단의 일방적인 강의 형식의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병사들이 국방TV에 출연해서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좌담회 형식의 교육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 방송사와 종편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실시간 시청자 참여 방송처럼 병사들에게 제공된 수신전용 휴대폰을 활용해 SNS서비스를 이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간접참여 형식의 방송프로그램 등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주간정신교육 주제와 국방일보 교육내용을 일치시켜 병사들이 방송에 대한 몰입도 및 집중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공군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이 격오지 부대교육 시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새로운 인원이 교육을 하고 있는 모델을 국방부

에서는 주간정신교육에서의 교관과 집중정신교육 시 인접부대 교관을 교차·지원하는 ‘교관 차별화’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3 집중 정신교육

군 정신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반기 집중정신교육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제한된 교육장소 및 부족한 예산 지원, 교관들의 교관능력 미흡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됐듯이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요구되고, 용사들 모두가 즐겁게 배우고 서로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대화하는 등 통제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또한 부대별로 집중정신교육 시에 과목별 교관들의 교육과목의 역할 분담이다. 예를 들면 중대장들은 장병들의 군인정신함양을 위한 과목위주로 교육하고 기타과목은 외부강사들을 초청하여 장병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안보관 및 국가관 과목들을 교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반기 집중정신교육 시에 교육장소의 선정을 부대가 아닌 민간 위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대정신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있는 연수원, 수련원, 대학의 교육시설 등을 협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병사들의 참여도와 교육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방안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의 정신교육을 위한 사업예산의 증액과 뒷받침이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5. 결론

지금까지 인지중심의 군 정신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위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군 정신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대정신교육은 지휘관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 정신교육의 시스템은 지휘관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일정신교육은 야간에 지휘관이나 당직근무자에 의해 통제되고 교육이 되고 있지만, 사실 병사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낭독식으로 하는 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 또한 대적관 위주의 내용으로 읽어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다수의 병사 및 정훈장교들이 일일정신교육의 교육방법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병사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음의 휴식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일일정신교육을 위한 장비도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상태가 거의 불량한 실정이다. 특히 방송실을 갖추지 못하고 육성 또는 마이크만 비치하여 병사들이 낭독한다는 것은 매우 불비한 여건으로 하루 속히 장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부에서 매주 수요일 국방TV 정훈콘서트 시간에 외부강사로 구성된 내용으로 방송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전문가 집단의 강의 형식의 내용보다는 병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 형식의 쌍방향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기 집중정신교육은 대대급 제대에서 연간 반기 1회씩 하고 있는 중요한 정신교육으로 상급부대에서 핵심과목을 지정하여 교육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즉 핵심과목, 부대 위임과목으로 나누어 교육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대 위임과목 교육시 현장 체험식 교육이나 단결심을 배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병사들의 참여도가 매우 미온적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그 이유는 제한된 교육장소 및 부족한 예산지원, 획일적인 교육방법, 미흡한 교관 수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프로그램도 안보관보다는 병사들의 가치 및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지고 이것을 통해 글로벌시대, 다변화 시대에 맞는 장병정신교육이 될 수 있고, 무형 전투력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1] 이승진, 『인지중심의 군정신교육 개선방안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2] <http://blog.naver.com/songsks7/10012722335>
- [3] <http://jwoh72.blog.me/90004257879>
- [4] 박균열, '군 정훈교육의 실상과 개선방안', 북랜드, 2002.
- [5] 장영주, "한국군 정훈교육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6] 김진태, "군 정신교육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7] 유명덕, "군 정신교육이 병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실증적 연구," 정신전력연구, 제10집, 2008.
- [8] 김영삼, "군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군 매체 활성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9] 최광현, "정신전력 육성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4.
- [10] 라영준, "군 정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11] 이지연, "군장병의 태도 형성을 위한 정신교육-교수 학습방법 고찰," 군사논단, 제65호, 2011.
- [12] 김세훈, "한국군 병영문화의 문제 및 개선에 대한 연구," 『군사논단』, 제8권, 2015.
- [13] 강중혁, "GOP 부대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방안 연구," 국방연구보고서, 2014.
- [14] 김오현, 『정신전력과 리더십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7.
- [15] 국방부, 『정훈문화활동 지시』, 2016.

————— [저자소개] —————



이 승 진 (Lee Seung Jin)
1991년 4월 육군3사관학교 안보학사
1997년 2월 영남대학교 행정학석사
2016년 8월 대구카톨릭대학교 정책학
박사
현 재 안동과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교수

email : majlee2538@hanmail.net



이 영 욱 (Young-uk Lee)
1992년 4월 육군3사관학교 공학사
1998년 8월 아주대학교 공학석사
2008년 2월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박사 수료
2012년 8월 대전대학교 군사학 박사
현 재 전주기전대학 글로벌산업
인재과 교수

email : majlee2@hanmail.net